

아시모리와
인연이 있는
인 물 전

'천연두', '콜레라'와 싸운 근대 의학의 시조, 위인들의 스승



오가타 고안의 아버지는
아시모리번의 번사로서 번의 재정을
위해 오사카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한 고안은
오사카 지역에서 서양학을 접하고
의사이자 난학자,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 서양 의학서를 번역해 지식 보급
- 의사로서 실제로 사람들을 구제
- 데키주쿠(사숙)를 통해 수많은 인재
양성

이 같은 업적을 세운 고안은 막부에
소환되어 의업에 종사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크게 유행한 전염병인 '천연두'와
'콜레라'에 맞서면서 동시에 에도 막부
말기 유신기의 일본을 이끌어 갈
인재를 다수 길러낸 오가타 고안.
그야말로 '타인을 위해 산'
일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의사이다.
자신의 즐거움, 명예, 이익을 돌보지 말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오가타 고안 역 『후시이카이노라쿠』 중에서

Ogata Koan
緒方洪庵
(1810년~1863년)

더 알아보기! 오가타 고안

1 '데키주쿠' 출신자가 근대 일본을 만든다

고안이 의원 개업과 동시에 문을 연
데키주쿠는 난학 등의 지식을 실천할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군인 오무라
마스지로, 정치인 사노 쓰네타미 등
에도 막부 말기(1853~1867)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1)의 많은
위인들이 학문을 닦았습니다.

2 아시모리에서 백신 접종

1850년 번주의 명을 받은 고안은
아시모리로 돌아와 오카야마현에서
최초로 종두(천연두 예방 백신 접종)를
실시했습니다. 주변 지역도 찾아가
종두를 실시했고 가나가와의 난바
호세쓰 등 의사에게 방법을 전수하여
보급에 힘썼다고 합니다.

3 아내 야에와 이인삼각

고안이 오사카에서 의원을 개업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데키주쿠의
학생도 늘었다고 합니다. 17세에
고안과 결혼한 야에는 학생들을
보살피며 어머니로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안의 연구를 도우며 늘
곁에 머문 가장 큰 이해자이기도
했습니다.